

고부가가치용 BOPP 필름사업에 역점

국산기술 인정서 수여로 기술력 과시

대림산업은 에틸렌 연산 70만톤 생산능력을 보유한 2기의 나프타 분해공장을 비롯하여 HDPE, LDPE, PP, L-LDPE 등 폴리머 공장군과 SM, DB, MTBE 등 INTERMEDIATE FEED STOCK 공장군을 갖추고 있으며, 복합수지 및 플라스틱 가공산업에도 진출하여 완벽한 수직계열화를 구축하였다.

또한 미래경쟁에 대비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능력을 최대한으로 제고시켜 장기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ISO 9002 품질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종합경영 정보체계(CIM)를 구축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기초유분 및 범용수지 사업 일변도에서 탈피, 사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기능성 수지, 고부가가치 신규 GRADE, 정밀화학분야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회사의 장기비전을 설정하기 위하여 중장기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대림산업은 석유화학 경기의 호황에 따라 당초 에틸렌 기준 연 생산목표로 설정한 가동률 98% 수준인 68만톤을 무난히 초과달성하였으며, 폴리머 제품도 당초 생산목표대로 70만톤을 생산하여 8,000억 원대의 매출을 실현하였다.

한편, 미국, 서구 등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으로 자국내의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여력이 감소되면서 상대적으로 당사를 비롯한 국내업체에게 유리해진 가운데 대림은 총 매출액중 36% 가량을 동남아 등지에 수출하였으나 이는 지난해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내수시장에서 마케팅 부문을 한층 강화하고 끊임없는 품질개선과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우량고객을 고정고객으로 확보하는 등 내수영업 우선의 영업전략을 실천하였기 때문이며 해외시장에서는 그룹의 종합무역회사인 DAELIM CORPORATION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당사의 해외사업을 강화하고 수출여력이 있는 폴리머 제품에 대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과 양질의 SERVICE로 시장확대를 도모하였다.

당사는 에틸렌 등 기초유분의 자기수요 증대를 통한 나프타 분해공장의 안정가동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올레핀 공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산 10만톤 규모의 L-LDPE 공장 건설을 완료하여 순조롭게 가동한바 있다. 이 공장은 HIMONT 사로부터 기술도입한 SPHERILENE

공정을 세계 최초로 상업화한 것으로 L-LDPE 공장과 10만톤 규모의 PP 공장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필립스와 K-RESIN 생산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고부가가치 합성수지인 K-RESIN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사는 여천 1공장에 인접한 용성단지에 연산 4만톤 규모의 공장건설을 96년 4월에 착공, 97년 하반기에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며, 총 공사비는 약 600억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금번 대림의 K-RESIN 사업진출은 국내 석유화학업체가 NCC 신증설 계획을 세우는 등 반복적인 투자 경쟁형태를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 석유화학업체의 투자방향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연간 5,000톤 가량의 K-RESIN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중 80% 정도는 충격 보강재 및 투명개선편제로 GPPS에 BLENDING하여 일회용 용기 등 압출성형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수요는 93년 기준으로 연 5만톤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여타 수지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무한하고 국제수급전망으로 볼 때 향후 10년간 연평균 9%대에 이르는 고속성장이 예

상되고 있다.

동사는 이밖에도 플라스틱 가공분야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주 3공단에 위치한 약 4만평 규모의 전주공장에 연차적으로 약 1,000억원을 투자하여 포장재로 각광받는 BOPP 필름 가공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BOPP 가공사업은 고도의 기술과 많은 자본이 요구되는 가공사업으로 동사는 다각적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오던 중 중견 BOPP 생산업체였던 연광화학이 부도를 냄에 따라 성업공사 구매를 통하여 BOPP 생산설비를 인수함과 동시에 오는 96년 1월 상업가동을 목표로 설비이설 및 개체 등 공장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 규모(10,000톤/년)의 1 LINE 설치기준으로 약 200억원 정도에 달하는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BOPP 필름 가공사업은 실제

시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GRADE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3 LINE 이상의 추가설비가 필요함에 따라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동사업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무리한 설비투자후 자금난으로 고가의 생산설비가 가동정지됨으로써 고용측면이나 자본시장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동사가 BOPP 설비인수를 통한 시장참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제품의 품질개선 및 신제품 개발, 생산기술, 유통 및 판매능력 등에서 제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림은 96년도에 신규 설비자금을 추가로 투입, 오는 97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연산 15,000톤 규모의 BOPP 필름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을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범용 BOPP 필름보다 수익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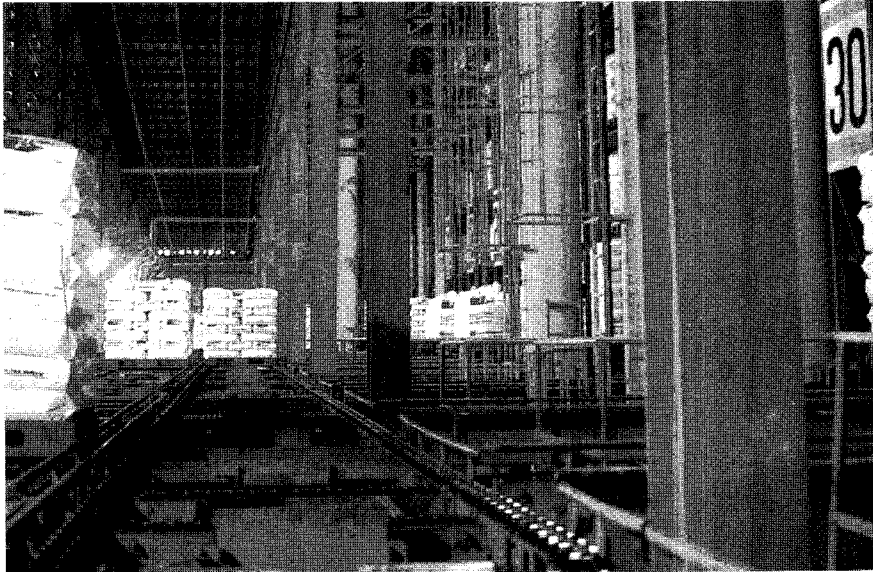
높은 고부가가치용 BOPP 필름 생산에 참여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연산 15,000톤 규모의 2개 생산라인을 증설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98년 들어서는 총 4개 LINE, 연산 55,000톤 규모에 이르는 대단위 BOPP 필름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최대규모의 석유화학업체인 대림산업은 플라스틱 가공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BOPP 필름분야의 품질개선 및 신제품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과 가공기술의 선진화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림은 자사 여천공장에서 생산중인 폴리머 제품의 자체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폴리머 제품의 영업기반을 강화하게 됨은 물론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사 대덕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과 가공설비간의 연계가 원활해짐에 따라 연구시너지 창출과



▲ 하늘에서 본 여천 유화단지내 대림산업 공장전경



▲ 여천공장의 자동화시설

함께 품질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대림은 BOPP 제품에 대하여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함으로써 제품을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향후 해외의 BOPP 시장은 한국과 대만제품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동사는 경쟁업체와 달리 RESIN MAKER로서 원료를 자체조달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유지는 물론 가격경쟁면에서도 경쟁업체에 비해 절대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림은 일찌기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진기술의 습득과 자체기술력 배양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과학의 메카인 대덕 연구단지내에 국제규모의 석유화학 전문연구소를 설립하여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자사의 NCC에서 에틸렌 및 프로필렌과 함께 부생되는 C4 잔사

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폴리부텐 제조공정을 개발하고 지난해말 12,000톤 규모의 상업공장을 성공적으로 가동함으로써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수입대체와 함께 기술공여를 통해 해외로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최근들어 각계의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보호용 플라스틱 개발에 힘써온 결과 폐기된 플라스틱 제품이 생·광분해되는 분해성 플라스틱 '대림 씨니폴'을 개발하였고, 각종 플라스틱 가공제품의 충격강도 향상 및 수축방지, 제품 경량화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주는 무기발포제 '대림 파인셀'을 개발, 시판중이다. 또한 절연커버용 난연성 컴파운드를 개발 과학기술처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산신기술(KT) 인정서를 수여하여 대외적으로 기술개발력을 과시하였다.

최근들어 '전략적 제휴'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세계적 석유화학 회사로 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HIMONT사와 폴리올레핀 분야에서 공동 연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미국 HIMONT사가 최근에 신규개발한 L-LDPE 공정인 슈페리렌 공정(SPHERIENE PROCESS)을 당사가 채택, L-LDPE 공장의 건설과정에서 상업가동에 이르기까지 대림의 우수한 설계 및 시운전, 제품의 용도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함에 따라 동 공장에서 생산되는 L-LDPE의 구조분석과 물성 및 가공성 향상을 과제로 대림 연구소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선두업체로 기반을 다져온 대림은 이제 '다각화된 세계적인 화학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밝은 21세기를 열어가고 있다. [K]